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 분석*

An Analysis of Tourism Experience for retired Baby Boomers

박 창 환** · 이 훈***

Park, Chang-Hwan · Lee, Hoon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 관광경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 1차 베이비부머 29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관광경험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퇴직 후 존재론적 불안의 위협', '관광활동 참여 형태 변화', '관광방식의 변화', '전환적 관광경험', '관광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재생산' 5개의 의미 있는 범주(cluster)를 도출하였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정체성 혼란, 사회적 관행의 압박에 따른 불안과 새로운 관광계약으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가자들은 전환적 관광환경 속에서 퇴직 전과 다른 자유로움, 여유로움, 신기함 등의 경험을 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관광설계, 나만을 위한 관광, 자기 성찰 등의 주체화된 관광경험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우리사회의 구조와 베이비부머의 관광행위가 퇴직 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생애전환기의 전환적 관광환경은 개인의 주체적·성찰적 경험을 제공하며, 정체성과 가치체계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존재론적 불안은 관광경험을 통해 극복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삶과 관광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용어 : 베이비부머, 퇴직, 관광경험, 전환관광, 존재론적 불안, 자기성찰, 자기정체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retired baby boomers' tourism experience. The study findings are based on an analysis of 29 in-depth interviews. Five clusters were developed: "threats of ontological security,"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ourism activities," "changes in the way of tourism," "transformative tourism experience," and "reproduction of new meaning of life." The tourism experie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unique and specific social context in which it was constructed and to the unique personal and contextual experience. In particular, the existential anxiety felt in the post-retirement social pressure of baby boomers is overcome through the transformative tourism experience and reflective tourism experience. As such, post-retirement tourism experiences form a positive meaning in an individual's life, affecting self-identity.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sult are discussed.

Keywords : Baby boomers, Retirement, Tourism experience, Transformational tourism, Ontological anxiety, Self-reflection, Self-identity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4730).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 e-mail: chpark3166@hanyang.ac.kr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hoon2@hanyang.ac.kr

I.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수가 2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9억 6천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된다(He, Goodkind & Kowal, 2016).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시장의 규모도 2015년 기준 약 27조 3,80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여가분야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15). 이전부터 여가·관광분야학자들은 고령인구의 은퇴 후 구매력과 여가시간 증대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Chen & Shoemaker, 2014; Huang & Tsai, 2003). 고령인구의 관광동기, 시장세분화 특성, 관광경험 등은 고령관광시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으며(이훈·황희정, 2008; 장양례, 2005; 조아람·이훈영, 2017; Chen & Wu, 2009; Fleischer & Pizam, 2002; Hung & Lu, 2016; Tiago, Almeida Couto, Tiago & Faria, 2016), 관광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편익을 얻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로 이어졌다(Milman, 1998; Nimrod, 2008; Wei & Milman, 2002).

고령관광시장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장되는 데 비해 이를 구성하는 집단에 대한 이해가 '노인'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Patterson, Sie, Balderas-Cejudo & Rivera-Hernaez, 2017; Shoemaker, 1989). 노인의 기준은 생활연령을 근거로 하지만 55세, 60세, 65세 등 각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연구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세대의 구분의 필요하다(최미선, 2011; Patterson *et al.*, 2017). 세대 연구가 Mannheim(1970)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사회·역사적 사건 및 환경이

개인의 가치 체계와 성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세대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각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Chen & Shoemaker, 2014), 고령인구 내에서도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구분한 세대단위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2010년을 기점으로 퇴직이 시작되었으며, 고령사회로 편입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년기와 중년기 사이인 중년전환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배영순·최호진·허새나, 2015). 베이비부머는 이전 노인세대보다 건강하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보건산업진흥원, 2015; Faranda & Schmidt, 2000; Gardiner, Grace & King, 2015). 또한 여행경험이 많고 여행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Patterson, 2006; Sangpikul, 2008; Wang, Chen & Chou, 2007). 이처럼 베이비부머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이라는 사건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더불어 관광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관광분야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마케팅 측면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전 일 중심생활에서 벗어나 퇴직 후 삶에 대한 심리적 갈등, 자기정체성 혼란 등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고화정, 2013; 남순현, 2016; 정찬인, 2010), 퇴직 후 실존적 차원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때 관광경험은 삶의 전환 및 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이훈·박창환, 2017; Judge, Walley, Anderson & Young,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관광목적지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나아가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퇴직 후 관광경험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과 퇴직이라는 생애사건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베이비부머의 관광경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퇴직 후 관광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관광경험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활동에 대한 인지, 경험, 의미 형성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의 특성

베이비부머(baby boomers) 또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하는 시기에 출생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쟁을 겪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다(최숙희, 2010).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총 인구 대비 14.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이철선, 2009),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1차 베이비부머로 지칭한다.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근대화 와 가난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사회문화와 경제에 영향력이 큰 세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최숙희, 2010). 또한 베이비부머가 속한 세대는 노동 가치에 함몰된 일 중심 윤리관을 갖게 되어 오직 생산적 노동만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반면에, 베이비부머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전후 번영이 높은 시기를 경험했다(Gursoy, Maier & Chic, 2008). 베이비부머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자아실현 욕구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 소비형태를 보이며, 여가생활에 대한 경제적 투자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윤소영, 2011). 베이비부머의 경제력과 능동적인 소비형태는 '새로운 세대(the new age)',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젊은 노인', '신노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기도 한다(윤소영, 2016; 한경혜·윤성은, 2007; Tiago *et al.*, 2016). 또한 베이비부머는 이전 노인세대보다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으며, 여행경험이 많고 여행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15; Gardiner *et al.*, 2015; Patterson, 2006).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친숙하며, 인터넷 사용 경험 비율도 높아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두일철·이노한·김용범, 2012).

하지만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를 다양한 집단(노인, 시니어, 실버, 베이비부머)에 편입시켜 연구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연령기준이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Roberson(1999)의 연구처럼 기간이 오래된 연구일 경우, 노인의 연령기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동우·임연진·유영철·서일권(2011)의 연구처럼 노인의 개념을 퇴직자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기업의 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이 55세로 낮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세대 내 가장 낮은 연령과 큰 연령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면, 연령 간 경험의 공유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60세, 5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연령이 낮다. 시니어와 실버의 경우 50세 이상, 55세 이상, 61세 이상 등 연령의 기준이 집단 내에

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듯 시니어관광은 범위를 50세 이상에서부터 74세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한국관광공사, 2012), 시니어관광이 국내에서처럼 베이비부머를 지칭하는 합의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니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다음 세대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는 시니어의 일반적 특성보다도 다음 세대가 경험한 사회문화적 환경, 세대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절대적 기준으로 관광시장을 구별 짓기 보다는 각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생애 주기적 특정사건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연구대상의 집단에 대한 규정이 시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박혜영, 2015; Faranda & Schmidt, 2000). 특히, 베이비부머를 기준으로 한 경우, 국가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전후 번영의 세대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Mannheim(1970)은 주목할 만한 사회·역사적 사건 및 환경이 개인의 가치 체계와 성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세대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각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Chen & Shoemaker, 2014),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베이비부머는 은퇴보다 퇴직의 형태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직과 은퇴는 직업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후 삶의 모습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닌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하거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반면 은퇴는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유와 풍요를 즐긴다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에서 나타난 모습과 유사하며, 의미와 가치추구 측면에서 퇴직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신체적 건강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에게 이전 노인세대처럼 남은 인생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는 은퇴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은 퇴직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부터 퇴직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에 해당되며, 역할전이와 관련해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화정, 2013).

베이비부머는 2010년 이후 퇴직이라는 인간의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이전의 직업에서 벗어나 퇴직자라는 새로운 역할로 전환되는 사회화의 과정을 겪으며, 퇴직 후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리적 갈등, 정체성 혼란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화정, 2013; 남순현, 2016; 정찬인, 2010; 최주환, 2016). 이렇듯 퇴직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이훈·박창환, 2017; 이훈·정철·정란수, 2003; Kelly, 1990; Leitner & Leitner, 2004; McGuire, Boyd & Tedrick, 1996).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에도 30~40년의 삶을 더 보낼 것으로 예측되며(한경혜·이정화, 2012), 퇴직이 시작된 2010년부터 우리나라 사회인구문제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퇴직 전 노후대비와 퇴직 후 적응에 필요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연구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편입에 따른 정책개발 연구, 퇴직 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Lusardi & Mitchell, 2007).

2. 베이비부머의 관광경험

관광은 행위자의 행동과 관광목적지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객의

정서적·인지적 경험을 형성한다(Otto & Ritchie, 1996). 이를 심리적 차원의 관광경험이라고 하며, 관광행동의 결과물로서 관광객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관광경험에 대한 주요 흐름은 점차 인지적(cognitive) 측면에서 경험의 개별적인 면(individual facet)과 감정적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Agapito, Mendes & Valle, 2013; Cirrincione, Estes & Carù, 2014). 개별적 경험의 토대가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기여하고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련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감정과 분위기가 경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객은 같은 목적지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여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관광경험은 전 과정이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holistic experience)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광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Otto & Ritchie 1996; Tussyadiah, 2014).

관광경험이 강조되는 것은 문화적·인지적 장벽(block)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참신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지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Bloom & Goodnow, 2013). 관광활동은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남(being away)을 통해 개인에게 물리적(physically), 인지적(cognitively), 심리적(psychologically) 자유를 제공한다. 관광목적지에서는 사회적 역할이 중지되고 일상과 분리된 경험을 얻을 수 있다(Jaimangal Jones, Pritchard & Morgan, 2010). 일상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때, 관광객은 사회가 규정한 사회 질서를 따르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의미를 추구한다(Kirillova, Lehto & Cai, 2017). 또한 Morgan(2010)은 개인이 매우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가치와 행동에 직면하였을 때, 시공간적 맥락

(spatiotemporal context) 또는 장소(place)에 따라 개인의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권미혜·김홍범, 2016; 송영민·강준수, 2017). 즉, 관광경험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가치 체계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객의 실존적 진정성이 촉진되는 리미널(liminal)한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한다(Wang, 1999).

베이비부머가 관광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Littrell, Paige & Song, 2004; Sangpikul, 2008; Wang, Chen & Chou, 2007), 관련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혜영, 2015; 오영환, 2013; 이성철, 2013; Gardiner, Grace & King, 2015; Patterson, Sie, Balderas-Cejudo & Rivera-Hernaez, 2017).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국외연구에서는 미국의 베이비부머(1946~1965년생)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 바라보는 베이비부머의 관광과 관련된 특성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대부분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로워 비수기나 요일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Fleischer & Pizam, 2002).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이 수명을 연장시켜 더 오랜 기간 여행할 수 있고 여행기술이 뛰어나 자기가 원하는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Sharpley & Stone, 2012).

Patterson and Pegg(2009)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다른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국적인 장소를 선호하며, 자기표현, 창의력 및 내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즐거운 관광활동보다는 지식을 얻음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광경험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기인식과 사회적 역할에 순응하는데 영향을 준다(Jaimangal Jones *et al.*, 2010). Patterson *et al.*(2017)은 미국의 베이비부머(1946년~

1964년)의 여행경험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베이비부머는 독립적인 여행을 선호하며, 모험적이고 진정한(authentic) 학습경험을 원하고 여행을 통해 마음을 배우고 넓힐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경험(memorable tourism)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베이비부머가 이전 세대보다 더 다양한 여행경험을 원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길 원한다고 하였다.

Nimrod(2008)는 퇴직 후 관광학습프로그램에 참가한 10년 이내의 퇴직자 20명을 대상으로 관광경험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설명되었는데 첫째, 퇴직은 여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퇴직 후 새로운 제약(constraint)에 마주한다는 것인데 제한적 수입, 건강 제한, 간병 부담, 여행 파트너의 부족 등을 포함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체력부담이 적은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협상을 하였다. 셋째, 여행과 여가의 경계가 가까워지고 여행을 위한 여가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넷째, 참가자들은 관광을 통해 자연 보존, 퇴직 전 하던 일, 오래된 관심사와 관련된 것들에 생산성(productivity)과 가치(value)의 지속적인 감각을 연속적(continuity)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양질의 시간을 위한 것이며, 공동 여행의 패턴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관광경험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상황적 환경과 관련된 관광경험에 대한 실존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ung &

Lu, 2016). 이에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 또는 혼합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와 관광경험의 관계에 관한 더 깊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Hughes & Deutsch, 2010).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방법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phenomenology)은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식론적 철학 또는 방법이다.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ical method)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 법칙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방법이다. 이는 현상과 관련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와 같은 여러 개인의 공통된 체험(experience)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 의미를 기술한다(김분한 외, 1999; 신경림, 2003, 이남인, 2005; Moustakas, 1994). 또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정서적 상태, 감정, 태도, 지각된 의미와 같은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현상의 경험들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의 증거들을 활용하여 인간 존재론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실재를 입증한다(Creswell, 2013; Moustakas, 1994). 즉, 현상학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감정의 범위를 찾는 데 사용되거나 문제에 대한 초기 이해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탐색적 방법이다. Creswell(2013)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문제는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의 공통적 또는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산업화 시대의 평균화, 획일화, 기계화 등의 표준화된 경험

을 세대적 특성으로 형성하고 있어 퇴직 후 변화되는 상황적 맥락 속에 어떠한 관광활동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이라는 생애전환기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관광경험의 복잡성은 이론과 경험사이의 해석학적 과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험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기존 노인세대와도 구분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이론에서 활용하는 이론으로 베이비부머의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위하여 질적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Hughes & Deutsch, 2010; Hung & Lu, 2016).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을 살펴보고 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은퇴 후 여행을 다녀온 1차 베이비부머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경험이 있는 1차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신의 생생한 관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은퇴자 지원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퇴직자 여가활동 모임단체 100여 곳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각 단체의 SNS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의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참여자를 일부 모집하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자를 추가 모집함으로써 표본의 편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50여 명 정도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퇴직의 여부와 베이비부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20명을 1차 인터뷰 대상자로 모집하였으며,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론적 고찰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된 진술내용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방

식으로 2차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여 <표 1>과 같이 29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심층면접 경험이 많은 전문가 2인과 연구보조원 1명이 1-2시간 동안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별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각 참여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 또는 인근 카페 등을 선정하여 사전에 약속한 일정에 맞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퇴직 후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퇴직 후 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관광지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퇴직 전후 관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진술내용은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모두 녹취하여 전사하였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연구윤리를 갖추었다. 또한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료 분석과정 전반에 전문가, 동료 연구자 등 복수의 연구자를 활용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자 측면의 삼각검증을 반복하였다(Denzin & Lincoln, 2011).

자료의 분석은 진술자의 경험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Colaizzi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인간의 경험적 지각 이상의 경험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특히, 연구 참가자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연구 참가자의 전체 경험을 광범위하게 분석함으로써 전체 연구자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해내는 데 특징이 있는 기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통된 세대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상황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관광경험을 하는지의 공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Colaizzi의 연구기법을 선택하였다. 이 기법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로 분류하고,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참

가자들이 경험한 의미의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구조의 타당성을 연구 참가자로부터 다시 확인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반영된 주제를 편견 없이 수용하게 한다(신경림, 2003). Colaizzi의 분석기법은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끌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재진술을 통해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한다. 그리고 주제를 부여하고

주제의 집단화와 전반적인 범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분한 외, 1999).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은퇴 후 여행에 참가한 여행자의 통과의례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신경림·조명록·양진향, 2008). 이를 위해 심층인터뷰로부터 수집한 녹취자료를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출생년도	퇴직 전 직업	퇴직 후 기간	여행지	동반자	여행기간
참가자 1	여	58년생	영화 칼럼니스트	2년	이태리	혼자	2주
참가자 2	남	56년생	대기업 임원	3년	일본	모임	5일
참가자 3	여	56년생	일반 회사원	5년	베트남	아들	한달
참가자 4	여	58년생	공무원	1년	유럽	혼자	2주
참가자 5	여	57년생	초등학교 교사	3년	미국	부부	2주
참가자 6	남	57년생	고등학교 교사	3년	미국	부부	2주
참가자 7	여	57년생	일반 회사원	1년	유럽	모임	10일
참가자 8	여	60년생	일반 회사원	2년	유럽	아들	2주
참가자 9	남	55년생	대기업 임원	5년	동남아	모임	5일
참가자 10	남	56년생	은행원	3년	일본	모임	5일
참가자 11	여	58년생	고등학교 교사	2년	터키	부부	10일
참가자 12	남	55년생	은행원	5년	히말라야	모임	8일
참가자 13	남	60년생	군인	2년	유럽	부부	10일
참가자 14	남	60년생	일반 회사원	3년	일본	부부	5일
참가자 15	남	59년생	고등학교 교사	1년	일본	모임	5일
참가자 16	남	63년생	일반 회사원	5년	강원도	모임	2일
참가자 17	여	60년생	그래픽 디자이너	7년	북유럽	혼자	2주
참가자 18	여	58년생	공무원	1년	프랑스	모임	2주
참가자 19	여	58년생	고등학교 교사	2년	북한산	모임	1일
참가자 20	여	62년생	일반 회사원	1년	관악산	모임	1일
참가자 21	남	61년생	일반 회사원	1년	동남아	부부	5일
참가자 22	남	60년생	연구직	3년	제주도	모임	2주
참가자 23	여	59년생	일반 회사원	5년	전국	부부	매주
참가자 24	여	56년생	고등학교 교사	3년	유럽	모임	2주
참가자 25	남	58년생	일반 회사원	4년	미국	혼자	1달
참가자 26	남	57년생	대기업 임원	2년	이스라엘	혼자	1달
참가자 27	남	61년생	대기업 임원	2년	제주 올레길	혼자	1달
참가자 28	여	61년생	일반 회사원	1년	덴마크	혼자	10일
참가자 29	여	61년생	중학교 교사	1년	세계문화유산	부부	2일

연구자 2명이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전사하고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자료의 전반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엄격성(rigorousness)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과 더불어 Guba and Lincoln (1994)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자료를 읽으면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충분한 자료수집의 순환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구, 절, 문장을 추출하여, 주의 깊게 살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연구자와 함께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s clusters), 범주화(cluster)로 분류하고 지도교수와 여가관광학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음으로써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였다. 지속적으로 원자료와 비교분석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전의 단계를 다시 거쳐 적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체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판단중지를 함으로써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미단위와 주제 및 범주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가자별 범주와 주제에 의미 있는 진술이 포함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적용성(applicability)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의미단위와 주제, 범주화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었으며, 연구 참가자의 공통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을 설명적으

로 기술하였으며, 참가자들이 경험한 현상과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IV. 실증분석

1. 퇴직 후 존재론적 안전의 위협

1) 정체성의 혼란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후 사회적·심리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중심으로 형성된 역할 정체성의 상실에 따른 자존감 하락과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에도 자신이 생산력을 겸비한 40대 정도라고 인지하기 때문에(최미선, 2011), 이전 노인세대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으며(김정실, 2007), 노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연금 수령과 같은 노인의 상징을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 기능의 노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체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자존감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는 60대가 되면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그야말로 여가 같은 것을 찾아가는 게 당연했는데, 제 세대의 50대, 60대 들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참가자, 25).

오늘 연금 신청하고 왔어요. 그런데 슬프더라고요. 벌써 내가 연금받을 나이인가? 근데 올해 제가 체력이 확 떨어지는걸 느꼈어요..그럼 난 어떻게 지내면 되지? 뭐 요런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이 들면서(참가자, 28).

옛날처럼 뒷방늬은이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나이 나 신체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은 전혀 아니구요, 일찍 자식을 또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또 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참가자, 29).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명함으로 나를 표현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명함이 사라짐으로써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할지를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렇듯 일 중심의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객관적 정체성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하락, 심리적 위축과 같은 주관적 자기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직하면 2개가 켈 불편한게 갈데가 없다라는거 하고 고거하고 인사를 할 때 명함이 없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건 내 자존감이 굉장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참가자 27).

예 그래가지고 그 직함이 솔직히 가장 그 어떤 아이덴티티 문제도 있지만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어떨 때 그전에는 아주머니 들어도 서럽지가 않았어요(참가자 29).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존재가치가 없고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였다. 일은 곧 능력이며, 존재가치,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인식에 반하여 여가를 즐기고 관광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쓸모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베이비부머는 관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고 관광을 하는

것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소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능력이라는게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쓰임새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면 되게 본인에 대한 실망과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을 가져오죠(참가자, 26).

2) 사회적 관행의 압박

참가자들은 퇴직자를 향한 우리사회의 관행과 타인의 시선에 직면하였다. 베이비부머는 여러 가지 은퇴자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생산성을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퇴직자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경험보다도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치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남은 시기를 늘면서 보낼 수 없다는 분위기와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뭐냐하면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자꾸 주 입을 하니깐..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참가자, 1).

우리 여태까지 배워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난 다시 또 배워서 남은 세월을 살라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사실 놀지 않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영어 배우고, 다시 뭘 배우라고 하면(참가자, 23).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형성된 퇴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규범적 가치가 타인에 의해 느껴

지게 되는 것이다. 일을 해야 하는 사회적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시간적 분리와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공간적 분리에 따른 혼란과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집 앞에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먹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누가 일렀나봐. 아저씨 노냐고. 집 앞에서 요새 커피 안 먹어요, 못 먹어. 막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참가자 14).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 느낌 아실지 모르지만 산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 나같은 사람같이 보고 나에게 대해 신경도 안쓰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거 같은 느낌?(참가자 27).

또한 참가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퇴직자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고정된 참조체계(frame of reference)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자기규범으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형성된 참조체계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규범화의 지속으로 이어진다(Mezirow, 1981). 마찬가지로 퇴직 전 일 중심으로 형성된 이전의 참조체계로 인해 퇴직 후 전환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삶의 왜곡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남들 시선에 두면 좀 뭘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3).

모든 사람들 꿈이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여유 있게 사는 거. 그런데 그거는 다 사기고. 그거는 감성을 건드리는 멋진 말이지만 사기야.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남자는 인생에서 낙오자야(참가자, 23).

우리나라 패턴으로는 아직 70까지는 일을 해야 되요, 거의 70이면 제가 10년정도 남았잖아요. 10년 동안에 제가 하고 있는 이걸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것들 생각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참가자 26).

3) 여유시간의 권태

연구 참가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여유시간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황스러워 하였다. 퇴직 전 대부분의 시간을 일 중심으로 보냈으며, 일 외 나머지 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 후 일과 여유시간의 비중이 반대가 된 상황에서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되어있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에 어색해 하였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노는 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잘 놀던 사람이면 이럴 수도 있다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병졌어요(참가자, 5).

노는 거 그게 힘들어요. 놀은 지가 5년 됐는데, 놀아본 사람이나 놀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참가자 14).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가도 즐겨본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배워야 해요. 놀아 봐야 노는데 놀이 본적이 없으니까(참가자 23).

참가자들은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무료함, 고립감,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일 중심으로 형성된 생산영역의 활동들이 사라지면서 한가한 시간들이 생산영역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잘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고.

여태까지 이런 시간을 가져본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전 까지 실컷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놀아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참가자 5).

보람이 없었다. 집에서 멍청하게 쉬는 것 같고 불안하고..논다는게 아직까지는 무의미하고 논다는게 너무 아까워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깐 집에 그냥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참가자 7).

뭔가 할거는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온 그 공허함은 내가 무슨짓을 했지? 라는 생각도 드는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하지?(참가자 29).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워야한다는 강박을 느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퇴직 후 바람직한 삶을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참가자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퇴직 전의 시간들이 '바쁨'이라는 가치를 소비하는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정지한 것이고 인간의 삶을 좀 먹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차매도 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참가자 5).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마침 숙제안한 느낌 있잖아요? 어디를 가야되는데 하지 않은 느낌(참가자 29).

2. 관광활동 참여 태도 변화

1) 내재적 욕구를 실현하는 기회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을 자신의 내재된 욕구를 실현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경험에 대한 욕구, 일 중심 생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 자기탐색의 욕구 등

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참여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개인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났으며, 내재된 특성이 관광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전체 관광경험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최일선·이훈, 2016).

어느날 갑자기 미치도록 가고싶을 때가 생겼어요...그게 몇 년 동안 심했는데(참가자, 1).

저는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일을 했으니깐 열심히 살았으니깐, 누가 그런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싶지 않고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해요(참가자, 8).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설렘? 그게 자꾸 내 심장을 뛰게 만든달까?(참가자, 13).

연구 참가자들은 관광활동을 퇴직 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일 중심의 생활로 인해 관광활동경험이 대체로 부족하였고 주말 혹은 휴가기간처럼 지정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 전에 해보지 못한 관광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행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게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 여행을 통해 내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거지, 이전에는 못해본 경험이니깐(참가자, 10).

제가 하고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15가지 써봤어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 뭔가 내가 뭐라 그래야되지? 그런 여행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가고 싶거든요(참가자, 19).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가 저기 내일 안가도 되고 가도되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걸 회사다닐 때 못하잖아요(참가자, 26).

퇴직 후 일 중심의 자기를 상실한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관광활동으로 이어졌다. 관광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퇴직 후 삶에 대해 구상하는 자기탐색의 수단으로써 관광활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어떤 여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찾고 싶은거죠. 나를 돌아보는거죠(참가자, 27).

내가 살아온 삶도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건지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거잖아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조금 입장정리를 해보고 싶죠? 그런데 길 떠나서 뭐가 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변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되고 되지 않을까? (참가자, 28).

2) 새로운 관광제약

반면 퇴직 후 늘어난 여유시간만큼 참가자들의 관광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다양해졌다. 퇴직 후 여유시간은 늘어났지만 '고정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제약', '동반자의 제약', '사회적 역할에 따른 제약', '건강상의 제약' 등이 관광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던 퇴직 전과 달리 경제적 부담이 관광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저축해둔 여유자금도 있지만 수입이 한정됨에 따라 지출을 줄이려는 태도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활동은 일상적인 여가활동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퇴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일을 해야 여행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여행도 할 수 있지..(참가자, 9).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는 여가에 딱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특수한 계층? 거기 빼놓고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데 여행하려고 하면 넉넉지가 않아

요(참가자, 10).

마음과 몸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여가생활을 하고. 그리고 돈이 중요해. 핵심은 건강이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돈이야(참가자 22).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활동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낯선 곳을 다녀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였다. 퇴직 전에는 타인에게 의존하여 즐기던 의존적 관광활동으로 인해 관광을 주도하는 동반자가 사라질 경우, 관광기회도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퇴직하고 나서는 집사람하고 몇 번 가보려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그래서 나는 지금 여행은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디를 가는데 중요하진 않아.(참가자, 2).

돈이 없으면 하지도 못해.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 가잖아. 상대가 없으면 하지도 못해. 예전에 사업할때는 파트너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그게 딱 단절됐잖아(참가자, 9).

또한 참가자들은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역할에 의해 관광을 쉽게 계획할 수 없었다. 자신은 퇴직을 하여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났더라도 배우자가 퇴직하기 전이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이라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퇴직 전보다 더욱 바빠지기도 하였으며, 이는 관광활동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아직까지는 남편한테 좀 매여있는 것 같아요..아들은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없었는데 밥

을 챙겨먹어야 되니깐..(참가자, 3).

제가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살아요. 아이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시어머니는 92세인데 치매있으세요. 그래서 여행가고 싶어도 시누나 다른 형제한테 부탁을 하고 가야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참가자, 24).

참가자들의 신체적 노화는 관광횟수와 목적지를 변화시켰다. 참가자들은 장시간 비행기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하는 것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과 시차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장거리 관광활동을 지양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가까운 나라, 움직이지 않는데 자유여행을 가요. 먼나라 힘들고 많이 이동해야되고(참가자, 1).

나이를 먹으면 비행기 타는 문제나 패키지를 가면 하루 종일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 그래서 뭐 보고 온지도 모르지. 지금의 여행은 힐링을 하고 이동거리를 적게 하는 거지(참가자, 6).

그냥 생각할때는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그런데 갔다오면 좀 피곤하더라구요. 후유증이 좀 있고, 시차적응도 힘들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들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참가자, 19).

3. 관광방식의 변화

1) 개인화된 관광

참가자들의 퇴직 전 관광형태는 일로써 가는 출장과 가족들을 위한 관광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 관광활동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적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개인화된 관광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때는 약간 애들을 여기저기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다닌 거지 내가 놀

러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지. 애들 여행경험도 시켜주고 그런 거에(참가자, 5).

퇴직 후에는 오롯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니는 거니깐 모든 것들이...그런게 확연히 다르죠(참가자 12).

결혼하고 나서는 의무감에? 나혼자 여행가고 그런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게 여행이었다면 이제는 그런거 없이 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죠(참가자, 21).

참가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관광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주말과 휴가철 외 평일에도 자유롭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성수기를 피하고 사전 예약을 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혜택도 경험하였다. 관광활동과 관련된 일정도 직접 조정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다.

직접 다 서치하고 클릭을 엄청 많이 합니다(참가자, 1).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사람들하고 놀러 간 거잖아요. 그냥 풍경이나 보고 오고 그런 건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여러 여행 목적지도 정하고 나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을 원하니까(참가자, 5).

퇴직 후에는 일단 제가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면에서 일단 절감이 되구요. 쌀 때 이제 갈 수 있다라는거 하고 또 나눠서 갈 수 있다는거하고..그런면에서 차이가 많죠. (참가자, 11).

2) 관광기술의 향상

참가자들은 주변의 관광 전문가를 통해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특히, 배우자나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과 함께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활동을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며, 새로운 감동을 느끼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배움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관광기술을 습득하였다. 퇴직 후 관광관련 교육을 통해 관광목적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관광목적지를 더욱 깊게 파악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도슨트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깐 목적이 전시관을 가는거예요,,예전에는 그림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으니까..동경에 가서 민박에서 자면서 미술관 순례를 했어요,,그게 정말 좋더라고요(참가자, 1).

아들이 설명해줘서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더 기억을 할 거 같고 여행이 좋았었다는 생각,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스치고 지나가고 공부해서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그랬던거를 되새길수 있어서 좀 똑똑해진거 같아서 좋았어요(참가자, 8).

김00라는 분은 둘레길만 토요일마다 다니는 분이예요. 그래서 저는 둘레길 가고싶으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번주는 어디가요? 라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간 이유가 제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로해서 내 욕구를 채울수 있다면 보탬이 되겠다 해서 간거예요(참가자, 27).

남편이 직업하고 전혀 다르게 원래 워낙 역사를 좋아해가 야사까지 알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렇게 오래된 유적이 많지 않아요. 본인이 들려줄 얘기가 많고 본인은 역사와 관련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 많았던 거죠. 남편이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야사까지 알려주고 그러다보니 재밌더라고요(참가자, 29).

4. 전환적 관광경험(transformative tourism experience)

1) 관광지에서의 새로운 경험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전과 다른 전환적 관광

경험을 하였다. 관광지의 새로운 환경, 문화, 생활양식에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같은 곳을 방문하더라도 퇴직 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퇴직 후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해방과 시간적 여유로 인해 관광활동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겨 장소를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때는 진짜 여행처럼 했어요,,여유롭게..자전거 타고..그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여행은 가고싶지,,친구들끼리 막 몰려가지고 패키지,,신천 이 런데 다녀왔는데 이게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참가자, 3).

퇴직 전과 많이 달랐죠...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심적인 여유가 생겼어요.(참가자, 7).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직장생활 시기에는 컸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굉장히 여유있죠(참가자, 24).

참가자들은 관광지의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낯설거나 신기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관광환경의 차이가 참가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특히,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자연경관, 관광지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장소정체성, 에스닉(ethnic)과 같은 전환적 환경은 참가자의 정서, 직관을 자극하는 주관적 요소로 작용하여 규범화된 가치체계나 의미구조를 깨뜨리는 기능을 하였다.

요번에도 북유럽 갔을 때 500만원 대출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하니까, 와서 '아... 참 내가 잘 왔구나.' 죽기 전에 이런 데 한번 와 봤다는 게 내 삶에 큰 의미를 찾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참가자, 13).

세상이 이렇게 늘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알게 된 거죠(참가자, 23).

그러면서 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주도도 몇 있는지 그때 알았대니까요?(참가자, 27).

2) 자기 성찰적 경험

또한 참가자들은 관광이 제공하는 전환적 환경 속에서 자기 성찰적 경험을 하였다. 퇴직 후 관광에서는 퇴직 전처럼 돌아갈 것을 걱정한다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하는 관광계약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결정적 생애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퇴직 전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현재의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의미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찰적 경험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이상적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의 모습을 구상하며,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고자 다짐하였다. 이는 퇴직이라는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성찰경험으로써 퇴직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전환의 계기와 내용, 성찰의 결과가 퇴직 후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자기 그 옛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장소라 하더라도..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는 노을지는거 보면 제 시점에 딱 요즘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딱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거 같고 노을지는게 참 아름답잖아요..나의 그 시간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3).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가 본연의 나로 내가 하고 싶었던거는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참가자, 28).

나도 숨이 긴 여행을 느끼면서 나도 할만큼 했다 이제 앞에 매인 잡은 할만큼 했으니깐 이제는 원 없이 다음일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보지 말자..그런게 내가 여행을 가서 느낀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히 여행을 마치고는 새로운 일을 하자고 판단한거죠. 여행이 다짐의 계기가 된거죠. (참가자, 26).

5. 관광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재생산

1) 개인적 의미 재생산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을 통해 개인적 의미를 재생산하였다. 개인적 의미는 퇴직 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과 내적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바쁜 삶 속에서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광을 다녀온 후 추억을 되새기며, 기쁨을 느꼈다. 관광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광지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거나 기억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윤유식·김은진·송래현, 2017; Kim, 2010), 특정한 관광경험이 다시 기억 또는 회상되며 관광했을 때 감흥과 감동이 일어난다(조강욱, 2016).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기억을 또 새롭게 해주니깐 직접 또 보고 체험했으니깐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놀러가는 그런게 아니라 그런 체험, 새롭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참가자, 8).

자기 자신을 충전시키고 또 갔다오면 마음이 넉넉해지니깐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18).

또한 관광경험은 그 순간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편안함을 느끼게 하였다. 때로는 부부간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연구 참가자들에게 퇴직 후 관광은 퇴직 전과 다른 공간을 제공하며, 내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의미를 생산하였다.

옛날에 애들하고 갈 때는 애들 보느라고 주변을 신경 못쓰는데 둘이 가니까 서로 느낌도 말하고 오순도순하고 해서 재밌지(참가자, 6).

가서 노는 순간은 즐겁죠, 올때는 또 걱정을 안고오지만...여행은 즐겁죠 뭐, 여행하는 동안에는 모든걸 잊어버리니까..(참가자, 7).

제가 우울증도 겪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훌쩍 색다른 공간에 가 있으면 좀 더 생각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28).

2) 자기정체성 형성

연구 참가자들은 관광경험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퇴직 후 상실된 객관적 정체성으로서 사회정체성과 심리적·성격적 측면의 주관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과 불균형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객관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으로서 '참가자 1'과 같이 관광활동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쌓고 관련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관광지 거주민들의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새로운 객관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관광경험은 퇴직 후 상실된 역할정체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자존감 하락 등을 극복하고 정체성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보통 길에서 일하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 프랑스 같은데 가면 길거리를 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쓸고 있는데요..미술관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하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설명해주는게 너무 좋

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고 싶었어요(참가자, 1).

캠핑장에 누가 텐트를 친 거야. 어떤 분이 저기에 쳤냐고 하니깐 할머니 할아버지 70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에 외국 그림 브로마이드 텐트 밖에다 딱 걸었는데, 나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거다 라고 생각했어요(참가자, 23).

퇴직하고 나서 제주 올레길을 돌았었어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2주정도 돌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었고 분노를 삭힐수 있어서 뭔가 그래야지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까?(참가자, 27).

3) 가치체계의 변화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활동을 통해 성격적 측면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관광경험을 통해 일 중심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 갖지 못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가자 6'은 여유 있는 관광경험을 통해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기존에 갖지 못한 가치체계를 변화시켜 나갔다. '참가자 13'은 관광지에서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성격을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참가자 18'은 서양문화가 지니는 친밀함을 실제로 실천해봄으로써 자기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일상적으로 생활 할 때는 길 가던 아가씨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도 저 아가씨랑 내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눈여겨보지 않던 것도 새삼스럽게 보이지(참가자, 6).

여행을 통해서 와이프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와이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섭섭한 것을 느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게 참 좋아요. 와이프한테 '아, 그래. 당신 나한테 이렇

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하고 나서 나도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내 자신이 성숙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철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서로 친한 친구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까,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런 게 제일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13).

그래서 참 우리도 저러면 좋겠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상 꼭 쓰고 있는데..외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는 열린마음 그런게 참 인상깊었어요. 나도 가서 해야겠다.. 맨 처음 한 두번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질문하면 그 사람이 부답스러워하니깐..어르신들은 말 한마디 부쳐드리면 참 좋아요(참가자, 18).

퇴직 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삶을 살아왔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관광활동을 하는 동안 퇴직 전 참가자들이 꿈꿨던 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참가자 3’은 퇴직 후에도 일 중심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관광경험을 통해 일 중심의 관점을 전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참가자 12’도 자신이 꿈꾸는 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하면서 일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까지 계속 일만 생각하면서 왔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게 있다면 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자.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겼나... 뭔가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합의 계기가 되지 않았다..(참가자, 3).

그때 일에 35년정도 몰두했으니깐 이제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겠다 하고 실천하고 있는거죠(참가자, 12).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거는 안가지면 어때... 그때 그걸 선택했던 거 같아요. 내가 다시 산다면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참가자, 17).

4) 사회적 확산

일부 참가자들은 퇴직 후 전환적 관광경험을 통해 개인적 의미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관광기술과 경험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베이비부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퇴직 후에도 표준화된 교육과 일 중심의 삶이 이전과 같은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펼쳐지고자 하였다. ‘참가자 1’은 자신이 노력하여 알게 된 저렴한 상품의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광경험을 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퇴직교육 외에 자신들 스스로가 의미를 생산하고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싼 상품이 나오면 너무 아까운거야. 내 친한친구한테 몇 개 돌리거든요..엄두를 안 내더라구요, 해외여행을 가는게 무리라고 생각하더라구요, 그렇게 좀 아쉬워요(참가자, 1).

누가 가신다고 하면 제가 얘기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제가 더 진취적으로 해서 그래요(참가자, 3).

요즘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동년배 세대한테 전하고 싶은거죠..주저앉아 있지말고 하고 싶은걸 해라..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거예요. 그때 전 이렇게 얘기해요(참가자, 12).

발상의 전환. 생각을 딱 바꾸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바뀌요. 교육도 좋지만 시니어의 생각을 바꿔 주는 게 중요하죠(참가자, 23).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 시간에 직면하거나(이훈·박창환, 2017; Leitner & Leitner, 2004), 퇴직 후 정체성 상실과 같은 심인적 갈등을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고화정, 2013; 남순현, 20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광경험은 삶의 전환 및 통합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이훈·박창환, 2017; 조동기, 2015; Judge *et al.*, 2010),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발견(self-discovery)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rown, 2009; Cohen, 2010; Pera, Viglia & Furlan, 2016; Reisinger, 2013b). 이에 퇴직 후 관광경험이 있는 연구 참가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직 후 관광경험이라는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퇴직 후 관광경험이 있는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2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진술은 콜레지(Colaizzi)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 <표 2>와 같이 33개의 주제와 13개의 주제묶음으로부터 '존재론적 안전의 위협',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 '관광방식의 변화', '전환적 관광경험', '관광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재생산'의 5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주요 담론은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과 삶의 변화이다. 베이비부머

는 퇴직 전 집단적 주체로서 일 중심의 삶을 살아왔으며, 퇴직 후 심리적·사회적·시간적·공간적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때 관광활동은 전환적 환경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주체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는 탈피기제로 작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베이비부머는 매개된 관광경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참가자들은 퇴직 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퇴직 전 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자기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생산력 있는 중년의 모습에서 퇴직 후 이전 노인세대와 동일시하는 모습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어져오던 퇴직자를 향한 사회적 시선과 규범적 가치체계는 참가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는 실존적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퇴직 후 강제된 여가시간의 선택에 직면하였다. 또한 강제된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시간과 나머지 시간으로 구성된 퇴직 전과 비교하여 하루 종일 일이 아닌 여가시간에 직면한 참가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는 시간의 소외현상을 겪고 있었다.

둘째, 참가자들에게 관광활동은 내재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퇴직 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관광활동,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한 관광활동, 퇴직 후 상실된 자기탐색을 위함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재적 욕구에 의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유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적 욕구 외적으로 퇴직 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계약이 형성되어 있었다. 퇴직 후 관광을 위한 시간적 제약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며, 오히려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개인의

〈표 2〉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에 대한 최종적 기술 결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	범주(category)	
노인세대와의 동일시로 정체성 혼란 직함의 상실로 인한 자존감 하락 존재가치 상실에 따른 자존감 하락	정체성의 혼란	퇴직 후 존재론적 안전의 위협	
사회적 규범에 의한 압박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압박 자기 규범화에 의한 압박	사회적 관행의 압박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름 경험해보지 못한 여가시간에 불안감 경험 무엇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시간의 강박 경험	여유시간의 권태		
여행에 대한 내재된 욕구 발현 퇴직 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현의 욕구 퇴직 후 상실된 자기탐색의 욕구	내재적 욕구의 발현		
고정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제약 관광 동반자의 제약 사회적 역할에 따른 제약 건강상의 제약	새로운 관광제약		관광활동 참여 형태 변화
나를 위한 자유여행 자기 주도적 관광계획 설계 관광전문가와 동행을 통한 관광기술 향상 관광지를 바라보는 시각 확장	개인화된 관광 관광기술 향상		관광방식의 변화
관광지에서의 시간적 여유 새로운 환경에 신기함 경험 관광을 통해 과거의 나를 돌아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봄 미래의 모습을 계획함	관광지에서의 새로운 경험 자기 성찰적 경험	전환적 관광경험	
퇴직 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자신에 대한 내적 보상 관광지에서 자기를 동일시 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관광경험의 전문화를 통해 사회정체성 형성 성격의 변화가 일어남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변함 자신의 여행기술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함	개인적 의미 재생산 자기정체성 형성 가치체계의 변화 사회적 확산	관광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재생산	

건강상으로 인한 제약, 고정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새로운 제약으로 관광활동 참여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imrod, 2008). 즉, 퇴직 후 관광활동은 내재적 욕구와 주변의 권유로

인해 참여하기도 하지만 퇴직 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적 측면의 관광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가 자유롭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활동 방식

이 변화하였다. 퇴직 전 일 중심, 가족중심의 관광활동에서 퇴직 후 자신만을 위한 관광활동을 추구하였다. 관광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관광시기와 목적지, 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일정대로 움직이는 주체적 관광형태를 보였다. 관광기술이 부족한 참가자들은 관광전문가와 동행하거나 교육을 통해 관광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서 경험을 쌓아갔다. 이는 퇴직 전 관광활동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기 보다는 사회적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개인화된 관광형태의 기회가 주어졌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 후 전환적 관광경험을 하였다. 전환적 관광경험이란 관광경험에 참여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태도와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와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다(Christie & Mason, 2003; Morgan, 2010; Reisinger, 2013a).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퇴직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간적 여유였다. 베이비부머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관광지에서 몰입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며, 같은 곳을 방문하더라도 퇴직 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공간적 환경이 전환적 경험을 유도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관광지의 고유성, 사회적 배경으로 형성된 장소정체성, 자연경관의 웅장함, 공간적 분위기, 아우라(aura) 등은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공간적 맥락(spatiotemporal context)에서 개인의 자기성찰과 같은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권미혜·김홍범, 2016; 권장욱·이훈, 2015; 송영민·강준수, 2017), 이는 베이비부머의 정서적 및 실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또는 풍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

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퇴직 후 관광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생산하였다. 관광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내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의미를 생산하였다. 또한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주관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관광활동을 통해 퇴직 후 낮아진 자존감과 노인세대와의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관광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퇴직 후 관련 직업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실된 사회적 정체성을 채워나갔다. 참가자들은 퇴직 전 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치관과 가치체계가 전환적 관광경험을 통해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의미 외에도 참가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생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전환기 관광경험을 둘러싼 개인적·상황적 구조의 관계와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퇴직자를 관광소비 계층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본주의-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베이비부머가 겪는 퇴직 후 삶의 소외, 정체성 상실과 같은 실존적 문제를 규명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관광경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밝혔다(김형곤, 2007). 이와 더불어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가정에서의 역할제약은 기존 베이비부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관광제약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제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에도 수명증가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재취업과 가정에서의 노부모, 배우자, 자녀부양 등의 역할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이는 서양에서 의미하는 은퇴의 개념이 아닌 퇴직의 형태로서 기존 노

인세대의 은퇴와는 다른 상황적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전환적 관광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 이는 관광의 맥락과 환경이 관광객의 태도와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전환관광(transformational tourism)과 관련된 연구결과(Christie & Mason, 2003; Reisinger, 2013; Morgan, 2010)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관광지 내 전환적 환경과 자기 성찰적 경험을 통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관광경험 차원의 전환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관광지에서 물리적·심리적·인지적으로 일상과 분리된 자유로움과 시간적 여유로움, 웅장한 자연환경, 자신만을 위한 시간, 지역사회문화 등의 새로운 환경은 전환관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isinger, 2013a). 또한 전환적 관광환경은 퇴직이라는 상황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성찰적 경험을 유발하였다. 이는 퇴직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전환의 계기와 내용, 성찰의 결과가 퇴직 후 존재론적 불안과 극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광경험을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과정을 규명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차원의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관광활동의 전문화, 직업화 등으로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을 대체하기도 하였으며, 관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전환적 관점에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자기탐색과 자기 확인으로써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주체성, 주도성 등의 성격변화를 통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는 관광경험이 자기정체성의 사회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정체성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실용적 측면에서,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관광경험을 통해 생애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노인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세분화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기존 정책은 50+라는 미국식 은퇴자 분류방식에 따라 50세 이상 또는 은퇴자라는 범주 내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은퇴와 퇴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기존 노인세대의 은퇴와 다르게 베이비부머는 퇴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삶의 모습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관광제약을 고려한 관광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은 자유롭지만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비수기활용 관광활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우처 지원시점을 퇴직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며, 여행행태도 퇴직 초반과 퇴직 후 일정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관광기술 향상을 위한 관광교육의 단계별, 대상별 구체화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는 관광 전 단계에서 관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관광 중 단계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관광전문가와 동행하거나 관광관련 교육을 받게 되면서 퇴직 전에 알지 못했던 관광기술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이전보다 만족도가 높은 관광경험을 하였다.

넷째, 퇴직 후 관광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증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있지만, 실제 관광경험에 대한 실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삶과 관광활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적·성향적 특성에 따른 관광형태와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긍정적 관광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나 각 의미단위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소 한계가 있다. 각 현상과 개념이 지니는 구조적 선후관계와 하위차원에 대한 구성관계는 추후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과 구조 규명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세대의 퇴직 후 관광경험이 베이비부머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참가자로 선정하고 베이비부머의 일 중심 가치관 관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이전·이후 세대가 갖는 특성과 퇴직이라는 생애전환기 사건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참가자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퇴직관련 관광교육 담당 실무자들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동우·임연진·유영철·서일권(2011). 은퇴 후 부부갈등 해소에 대한 여행 경험의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4(1), 115-136.
- 고화정(2013). 『한국 은퇴자 유형화 연구: Mixture Model을 활용하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미혜·김홍범(2016). 내·외면적 여가경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8(4), 225-243.
- 권장욱·이훈(2015). 자기성찰적 여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학연구』, 39(6), 149-161.
- 김분한 외(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정실(2007). 실버리뷰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5(3), 87-91.
- 김형곤(2007). 일상의 소외감과 관광에 있어 실존적 진정성 추구의 개념적 연관성의 이해. 『관광연구논총』, 19(1), 41-55.
- 남순현(2016). 『노인의 일과 여가 의미에 대한 Giorgi 현상학적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두일철·이노한·김용범(2012).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사회대응 여가문화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콘텐츠』, 24, 177-206.
- 박혜영(2015). 『시니어관광객의 가치관, 관광동기, 관광지선택속성, 관광만족의 영향관계』.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배영순·최호진·허세나(2015).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서울: 희망제작소.
- 민경민(2015). 『고령친화산업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고령친화산업 시장현황 및 수요분석』. 청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경림(2003). 이론: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49-68.
- 신경림·조명록·양진향(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송영민·강준수(2017). 제주 올레길 풍경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29(1), 41-71.
- 오영환(2013). 『시니어관광자의 정서, 동기, 만족과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윤소영(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유식·김은진·송래현(2017). 기억할만한 관광경험(MTE)세분 집단에 따른 관광목적지 이미지, 만족도 및 행동의도 차이연구. 『관광연구저널』, 31(1), 19-34.
- 이남인(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2.
- 이성철(2013). 청년층, 예비실버층 및 노년층의 세

- 대별로 여행동기가 여행상품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20(4), 135-154.
- 이철선(2009).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이훈·박창환(2017). 여가를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모형. 『관광연구논총』, 29(2), 25-50.
- 이훈·정철·정관수(2003). 인터넷 조사방법을 활용한 주5일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7(1), 63-83.
- 이훈·황희정(2008). 노인의 여가경험 분석. 『관광학연구』, 32(6), 317-338.
- 장양례(2005). 『노인여행자시장의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정찬인(2010). 한국 남성의 은퇴전환기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성인후기전환기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65-298.
- 조강욱(2016). 『관광경험과 자전적 기억 간 구조적 관계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조동기(2015).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통합적 노화’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연구』, 28, 45-68.
- 조아람·이훈영(2017). 시니어관광객의 추구편의에 따른 시장세분화. 『관광연구저널』, 31(11), 33-45.
- 최미선(2011). 『시니어세대의 구매성향에 따른 관광상품 구성요소 중요도인식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최숙희(201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양고령사회논집』, 1(1), 1-40.
- 최일선·이훈(2016). 활동성 여가행위자의 놀이성을 통한 여가경험 분석. 『관광연구논총』, 28(1), 83-104.
- 최주환(2016). 『은퇴한 남성 베이비부머의 내적 갈등 경험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133-162.
- 한경혜·이정화(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파주: 교문사.
- 한국관광공사(2012). 『시니어관광 활성화연구』. 원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 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세종.
- Agapito, D., Mendes, J., & Valle, P. (2013). Explo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ensory dimension of tourist experience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2(2), 62-73.
- Bloom, K. S., & Goodnow, J. (2013). Insight and the travel experience: An exploration into the contributions of liminality.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Research(Online)*, 13(1/2), 143.
- Brown, L. (2009).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international sojourn: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3), 502-521.
- Chen, S. C., & Shoemaker, S. (2014). Age and cohort effects: The american senior tourism market. *Annals of Tourism Research*, 48, 58-75.
- Chen, C. F., & Wu, C. C. (2009). How motivations, constraints, and demographic factors predict seniors.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14(3), 301-312.
- Cirincione, A., Estes, Z., & Carù, A. (2014). The effect of ambient scent on the experience of art: Not as good as it smells. *Psychology & Marketing*, 31(8), 615-627.
- Cohen, S. A. (2010). Personal identity (De)formation among lifestyle travellers: A double-edged sword. *Leisure Studies*, 29(3), 289-301.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 Research: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s. London: Sage.
- Christie, M. F., & Mason, P. A. (2003). Transformative tour guiding: Training tour guides to be critically reflective practitioners. *Journal of Ecotourism*, 2(1), 1-16.
-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 Faranda, W. T., & Schmidt, S. L. (2000). Segmentation and the senior traveler: Implications for today's and tomorrow's aging consum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8(2), 3-27.
- Fleischer, A., & Pizam, A. (2002).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106-123.
- Gardiner, S., Grace, D., & King, C. (2015). Is the Australian domestic holiday a thing of the past? Understanding baby boomer,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perceptions and attitud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holiday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1(4), 336-350.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Gursoy, D., Maier, T. A., & Chi, C. G. (2008). Generational differences: An examination of work values and generational gaps in the hospitality workforce.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7(3), 448-458.
- He, W., Goodkind, D., & Kowal, P. R. (2016). *An aging world: 201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Huang, L., & Tsai, H. T. (2003). The study of senior traveler behavior in Taiwan. *Tourism Management*, 24(5), 561-574.
- Hughes, H. L., & Deutsch, R. (2010). Holidays of older gay men: Age or sexual orientation as decisive factors?. *Tourism Management*, 31(4), 454-463.
- Hung, K., & Lu, J. (2016). Active living in later life: An overview of aging studi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53, 133-144.
- Jaimangal-Jones, D., Pritchard, A., & Morgan, N. (2010). Going the distance: Locating journey, liminality and rites of passage in dance music experiences. *Leisure Studies*, 29(3), 253-268.
- Judge, J., Walley, R., Anderson, B., & Young, R. (2010). Activity, aging, and retirement: The views of a group of Scottish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7(4), 295-301.
- Kelly, J. R. (1990). Leisure and aging: A second agenda. *Loisir et Société/Society and Leisure*, 13(1), 145-167.
- Kim, J. H. (2010). Deter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memorable nature of travel experienc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7(8), 780-796.
- Kirilova, K., Lehto, X., & Cai, L. (2017b). Tourism and existential transform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5), 638-650.
- Leitner, M. J., & S. F. Leitner. (2004). *Leisure in later life*. New York: Haworth Press.
- Littrell, M. A., Paige, R. C., & Song, K. (2004).

- Senior travellers: Tourism activities and shopping behaviour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0(4), 348-362.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205-224.
- Mannheim, K. (1970). The problem of generations. *Psychoanalytic Review*, 57(3), 378-404.
- McGuire, F. A., R. Boyd., & R. T. Tedrick. (1996). *Leisure and aging: Ulyssean living in later life*. Champaign, IL: Sagamore.
- Mezirow, J. (1981). A critical theory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dult Education*, 32(1), 3-24.
- Milman, A. (1998). The impact of tourism and travel experience on senior traveler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66-170.
- Morgan, A. D. (2010). Journeys into transformation: Travel to an "other" place as a vehicle for transformative learning.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8(4), 246-268.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 Nimrod, G. (2008). Retirement and tourism themes in retirees' narrativ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4), 859-878.
- Otto, J. E., & Ritchie, J. B. (1996).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3), 165-174.
- Patterson, I. R. (2006). *Growing older: Tourism and leisure behaviour of older adults*. Oxfordshire: Cabi.
- Patterson, I., & Pegg, S. (2009). Marketing the leisure experience to baby boomers and older tourist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18(2-3), 254-272.
- Patterson, I., Sie, L., Balderas-Cejudo, A., & Rivera-Hernaez, O. (2017). Changing trends in the baby boomer travel market: Importance of memorable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6(4), 347-360.
- Pera, R., Viglia, G., & Furlan, R. (2016). Who am I? How compelling self-storytelling builds digital personal reput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35, 44-55.
- Reisinger, Y. (2013a). Transformation and transformational learning theory. In Y. Reisinger (Ed.), *Transformational tourism: Tourist perspectives* (pp. 17-26). Oxfordshire: CABI.
- _____ (2013b). Connection between travel, tourism and transformation. In Y. Reisinger (Ed.), *Transformational tourism: Tourist perspectives* (pp. 27-32). Oxfordshire: CABI.
- Roberson, D. N. (1999). The impact of travel on older adul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ERIC*, 1-36.
- Sangpikul, A. (2008). Travel motivations of Japanese senior travellers to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0(1), 81-94.
- Sharpley, R., & Stone, P. R. (Eds.). (2012). *Contemporary tourist experience: Concepts and consequences*. London: Routledge.
- Shoemaker, S. (1989). Segmentation of the senior pleasure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3), 14-21.
- Tiago, M. T., de Almeida Couto, J. P., Tiago, F. G., & Faria, S. M. (2016). Baby boomers turning grey: European profiles. *Tourism Management*, 54, 13-22.
- Tussyadiah, I. P. (2014). Towar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xperience design in

-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53(5), 543-564.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 Wang, K. C., Chen, J. S., & Chou, S. H. (2007). Senior tourists' purchasing decisions in group package tour.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8(1), 23-42.
- Wei, S., & Milman, A. (2002).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hile on vacation on seniors' psychological well-being: A path model applicatio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6(2), 175-185.

2019년 2월 26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9년 4월 11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9년 4월 19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